



서길원 大記者 독자와 함께 詩 읽기

시간은 잊음과 벗어남이다

시계가 늦게 간다고 느낄 때와 빠르게 간다고 느낄 때가 있다.

거꾸로 주름살과 흰 머리칼이 하나둘 늘어날 때는 또 시계가 빨리 흐른다고 애웃은 시계를 원망하기도 한다.

아마 나태주 시인도 그레 '천천히 가는 시계'를 떠올렸을 게다. 다만 천천히 가는 시계의 개념은 다르지만.

"천천히, 천천히 가는 / 시계를 하나 가지고 싶다" 천천히 천천히 가는 시계는 수탉이나 빠꾸기나 부엉이 등 "새의 울음소리"로만 돌아가는 시계"를 가리킨다.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날 짐승의 시간, 즉 자연의 시간. 자연의 시간은 사람의 시간과 다르다.

"꽃의 향기로만 돌아가는 시계" 새의 울음소리만 돌아가는 시계에 이어 꽃의 향기로만 돌아가는 시계도 있다.

참 이쁜 표현이다. 이제 얼마 안 있어 봄꽃의 향연이 시작되면 꽃 속에 파묻혀 시간을 잊고 살게 된다. 꽃의 시간은 잊음과 벗어남의 시간이다.

"나도 인제는, 천천히 돌아가는 / 시계 하나쯤 내 품 속에 / 기르고 싶다." 이제는 시간에 매인 삶이 아니라 내가 시

간을 만들어 가는 삶에 빠지고 싶다.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니라, 내가 해냈을 때가 언제 인가를 알면 되는 그런 시간.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내일 못하면 다음 날 하면 되는, 왜 우리는 그동안 시간의 노예인 양 그리도 바쁘게 살아왔을까?

시인은 '새의 울음소리'로만 돌아가는 시간'과 '꽃의 향기로만 돌아가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다.

낮 하늘에 해가 떠있고 밤하늘에 달이 떠있음을 변연히 알면서도 모르고 지나쳐 잃어버린 시간을 찾으려고...

▶나태주 시인(1945년생) 충남 서천 출신으로 197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

천천히 가는 시계

나태주 작

천천히, 천천히 가는 시계를 하나 가지고 싶다

수탉이 길게, 길게 울어서 아, 아침 먹을 때가 되었구나 생각을 하고 빠꾸기가 재게, 재게 울어서 어, 점심 먹을 때가 지나갔군 느끼게 되고 부엉이가 느리게, 느리게 울어서 으흠, 저녁밥 지을 때가 되었군 깨닫게 되는 새의 울음소리만 돌아가는 시계

나팔꽃이 피어서

날이 밝은 것을 알고 또 연꽃이 피어서 해가 높이 뜬 것을 알고 분꽃이 피어서 구름 낀 날에도 해가 졌음을 짐작하게 하는 꽃의 향기로만 돌아가는 시계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가고 시도 쓸 만큼 써보았으니 나도 인제는, 천천히 돌아가는 시계 하나쯤 내 품 속에 기르고 싶다. <2016년>

■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 의무



박영나

/영암소방서 예방홍보팀장

차량 운전은 많은 책임을 수반한다.

운전자는 자신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중 하나가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이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운전자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를 의무로 여겨야 한다.

많은 국가에서는 차량용 소화기 설

치를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운전자가 긴급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소화기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 벌금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의 운전자의 긴급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화기를 보유하고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운전자의 안전 뿐만 아니라 주변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의 운전자의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다.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이 사회 공공재로서 안전하게 운행되도록 책임을 진다.

따라서 소화기의 설치의 개인적인 안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의 운전자에

게 부여된 주요한 의무 중 하나이다. 법적 의무뿐만 아니라 긴급 상황에서서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모든 운전자는 차량용 소화

기의 설치를 소홀히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우리 모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여 자신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봄철 산불예방 '미리미리 예방·초기 진화 필수'



박재성

/완도소방서 예방안전과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산림청에서 분석한 최근 10년 계절별 산불발생 현황을 보면 봄철(3월~5월)에 60%가 발생해 가장 많았으며, 겨울(12월~2월) 23%, 가을(9월~11월) 11%, 여름(6월~8월) 6% 순으로 산불이 발생했다.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는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봄철(3월~5월)이다.

2019년 4월 4일 발생한 속초-고성, 2022년 3월 4일에 발생한 강릉-동해 산불이 이 기간에 발생했다.

기후 온난화의 영향으로 가을부터 봄까지 강수량이 줄고, 과거보다 봄이 일찍 시작되면서 기온이 빠르게 상승하여 수분 증발량이 증가하므로, 봄철 토양이 건조해 작은 불씨에도 큰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가 40%가 가장 많으며, 다음은 논·밭두렁 소각 18%, 쓰레기

산불이 발생하기 위해 연소의 3요소는 가연물, 산소,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며 발화점이란 불이 붙을 수 있는 온도이다. 따라서 산불은 기온과 상관관계가 있다.

기온이 상승하면 공기 밀도가 감소하여 위쪽으로 상승하는 대류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현상으로 불씨가 번지기 쉬워 대형산불이 발생

소각 12% 등 소각산불이 30%를 차지하고 기타 원인으로 담뱃불, 성묘객 실화, 건축물 화재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자연발화로 인한 산불보다는 농산폐기물 소각, 등산객 실화 등 사람의 부주의에 의한 산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 예방이 필요하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산불 발생 원인으로 입산자 실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산불 최소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산자 스스로가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화재예방수칙. 산림청에서 발표한 산불 예방 수칙을 안내하는 그래픽. 1. 불판 쓰이기 소각 금지, 2. 담뱃불로 담뱃꽂기 금지, 3. 무단으로 불판 쓰이기 금지, 4. 불판 쓰이기 금지, 5. 불판 쓰이기 금지, 6. 불판 쓰이기 금지, 7. 불판 쓰이기 금지, 8. 불판 쓰이기 금지, 9. 불판 쓰이기 금지, 10. 불판 쓰이기 금지.

호남매일 디지털신문. 기사제보 062)363-8800. 호남매일 디지털신문. 2009년 11월 25일 창간(일간) 등록번호 광주 가-8(2000년 11월 10일) www.homae.co.kr. 발행·편집인 고계방, 주필 서길원, 편집국장 최춘의. 대표전화 (062)363-8800,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동 264-1번지). 사장실 (062) 363-0027, 편집국장 (062) 363-8800, 광고국 (062) 363-0005, 정·경·부 (062) 362-6116, 편집국(FAX) (062) 362-0078, 사·회·부 (062) 362-6226, 서울취재본부 (02) 783-8117, 문·체·부 (062) 362-6116, 인쇄취재본부 (062) 943-0140, 지·역·사·회·부 (062) 362-6226. 구독료 만달: 10,000원 /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새 희망 새 언론 새 천년



푸른 언론의 길을 지향하는 호남매일과 같이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 호남인과 함께 하는 신문
• 정도를 걸어가는 신문
• 공익을 생각하는 신문

-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062)363-8800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 264-1)
▶기사제보·독자 의견: TEL: (062) 363-8800 FAX: (062) 362-0078
▶광고문의: TEL (062) 363-0005
▶서울지사(취재본부): 010-8803-1472
▶인터넷 참여: http://www.homae.co.kr
▶E-mail: honamnews@hanmail.net honamaeil@naver.com

Table with columns for local and national news contacts. Local news (지국안내) includes contacts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circulation, advertising, and editorial. National news (지사안내) includes contacts for regional offices and headquarters.